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소신지서 강해  
-미가서-

##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잊지 말라

(미가 6장 1 - 5절)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민감하게 응답하시며 죄의 값을 반드시 물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를 바로 하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구원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등지고 너무 섭섭하게 헤드렸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 아닌 것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답답한 나머지 산들과 대화하시며 자연을 증인으로 삼고 말씀하십니다.

### 1. 하나님 상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때로는 잊어버리는 것이 축복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은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배은망덕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가 배은망덕의 죄입니다.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이 너희는 여호와와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2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하여 산과 땅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이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3절).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에 선한 것으로 도왔는지, 혹은 악을 끼쳤는지 대답해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은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문화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못났는지 하나님은 오히려 자연을 향하여 인간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으나 우리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가 막힌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간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폴리 갑이라는 교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잡혀가 사형언도를 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83년 동안 예수를 믿고 섬겼습니다. 내 인생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신하거나 섭섭하게 하신 적이 없고 항상 은혜만을 베푸셨거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말입니다.

### 2.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것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세 가지를 말합니다.

#### (1) 출애굽 사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4절).

이스라엘은 자력으로는 애굽으로부터 해방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마지막에 유월절 재앙을 통하여 마침내 애굽의 바로 왕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으나 우리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꾸 엉뚱한 길로 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가 막힌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간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행복하여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하여 광야에 들어가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미가는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대로 아굽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미 7:20).

하나님은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범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도 잊으면 안됩니다. 영원한 죽음과 암흑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된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 (2) 훌륭한 지도자를 세우신 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4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모세를 세우셨고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입니다(민 12:4, 6, 8).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론은 백성을 대신한 제사장입니다(민 12:6). 또 미리암은 여성 선지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 귀한 지도자들을 이스라엘에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목사, 곧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온 이스라엘 정신을 외치면서 다윗의 뿌리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민족정통성을 의미합니다.

#### (3)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숫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5절).

숫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 마지막 성이며 길갈은 요단강을 건너 후 첫 번 성입니다. 그러므로 숫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홍해를 건너 사건도 중요하지만 요단강을 건너 사건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더불어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은 이같이 이방 여인들과 잡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자비를 베푸셔서 요단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압 왕은 발람을 시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지만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행한대로 하나님이 갚으셨다면 벌써 죽어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2003 단기선교단, 농촌전도봉사단 파송식

##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그동안 기도로 준비해온 2003 제3기 단기선교단과 농촌봉사단을 파송한다.

제3기 단기선교단은 캄보디아로 파송받아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8월4일(월)부터 14일까지 10일간 전하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선교하게 된다.

또한 농촌봉사대는 충남지역 공주의 승원교회와 보령신덕교회로 5일(화)부터 8일(금)까지 4일간 파송받아 어

려운 형편에 처한 현지교회를 도와 건물을 보수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며 이미술 봉사와 의료 활동을 통한 전도활동을 펴 현지교회가 부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뜨거운 태양아래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파송받는 제3기 단기선교팀과 2003 농촌봉사대의 사역을 위해 모든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의 동참이 필요하다.

# 제24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2003 하반기 열린프로그램 확정

제24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및 2003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이 확정되었다.

제24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는 '목회 전문화와 교회성

장'을 주제로 9월8일(월) 개강할 예정이고 서울 성경대학을 비롯한 주부대학과 살롱 경로대학 역시 9월 둘째 주부터 개강된다.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기다린다.

### <제24목회자세미나> 주제: 목회전문화와 교회성장

일자	1교시	2교시	담당
9.8		21세기 사회변동과 목회전략	임성민교수(장신대)
9.15		전도전문화와 교회성장	박정식 목사(순천제일교회)
9.22		설교목회와 교회성장	김운용 교수(장신대)
9.29	시편연구	지역 및 교회특성에 따른 목회전략	장성진 목사(일신장교회)
10.6	이종윤 목사	새신자프로그램의 전략적 전문화	이용남 목사(장석교회)
10.13	(서울교회)	교회 교육의 전문화	김종준 목사(꽃동산 교회)
10.20		평신도 양육의 전문화	김상복 목사(일렐루아 교회)
10.27		기독교 상담 전문화와 목회	정석환 교수(연세대)
11.3		사회 봉사와 목회	류태선 목사(예장총회사회부총무)
11.10		기도 목회와 교회성장	김남준 목사(열린교회)

### <서울성경대학>

강좌	요일, 시간	담당	장소
성경	월, 오전 10:00~11:00	이태훈 전도사	602
목회	화, 오전 6:00~7:00	한상은 목사	602
교사양성반	목, 오전 6:00~7:00	오정식 목사	602
교구일꾼양성반	금, 오후 7:30~8:30	김운호 목사	602
평신도신앙강좌	주일, 오후 3:20~4:50	이정득 목사	609
요리문답반	주일, 오후 2:30~4:30	이용식 목사	607
	주일, 오후 1:00~2:00	김영환 목사	101
	주일, 오후 12:40~1:30	김재진 목사	602

### <교사양성반>

일자	강의제목	담당
9.14	교회교육의 목표	이정득 목사
9.21	성경개설(구약)	이용식 목사
9.28	성경개설(신약)	이태훈 전도사
10.5	성경적 교회론	김운호 목사
10.12	가족예배에서 교사의 역할	오정식 목사
10.19	학생의 이해(발달심리)	한상은 목사
10.26	교수-학습방법론	김희정 전도사
11.2	교사의 자질	이규정 목사
11.9	효과적인 반목회	조대영 전도사
11.16	참된 예배	윤영국 목사

### <주부대학>

일자	강의제목	강사
9.9	바람직한 자녀교육	서석정장로(남산중 교정)
9.16	글쓰기와 삶의 여유	윤영남집사(시인)
9.23	한방과 여성건강	김영주원장(한의학사)
9.30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가정	박성수장로(명지고 교정)
10.7	아외수련회	
10.14	생활법률	임상현장로(변호사)
10.21	가정경제	김금준집사(국민은행장)
10.28	음악과 생활건강	박정신집사(단대교수)
11.4	피부관리와 메이크업	이은주 강사(피부관리교육실장)
11.11	인터넷윤리와 관리	멀티미디어팀

특별활동: 꽃꽂이 교실, 종이접기교실, 요리강좌

### <교구일꾼양성반(ITC)>

일자	강의제목	담당
9.14	그를 기도인도	오정식 목사
9.21	다락방모임의 실제	이성득 목사
9.28	성령의 은사체코	서명철 목사
10.5	다락방과 교회봉사	윤영국 목사
10.12	다락방전도대	이규정 목사
10.19	다락방모임시 집단 상담	이용식 목사
10.26	다락방장의 리더쉽	이용식 목사
11.2	다락방성경공부 인도법	김운호 목사
11.9	이단연구	한상은 목사
11.16	다락방 운영방법	지혜영 전도사

### <살롱경로대학>

일자	강의제목	담당
9.18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죽음)	이태훈 전도사
9.25	중요로운 삶	박영진장로(순천CBS선교국장)
10.2	건강체조	김희선생(배초 교사)
10.9	노인과 환경	이동권박사(주엔비오대표이사)
10.16	아외수련회	(기독교 박물관)
10.23	참여정부 노인복지정책	왕광래장로
10.30	영화상영	담당자
11.6	나의 하나님	오정수장로-전인회편사
11.13	골다공증과 관절염	이정숙박사

특별활동: 성경교실, 컴퓨터교실, 무용교실

# 성실한 마음으로!

원초에 작성한 비전 2020 후원금(1구좌 3000원)이 많이 미납되어 운동 본부의 예산 실행에 많은 애로가 있다. 작성하신 분들은 자신의 납부 상태를 알아 보기 위하여 개인 봉투는 2층 새가족실 앞 현금봉투 비치함에 있다.

## 오르가니스트 공채 2차면접

지난7월28일 시행된 오르가니스트 면접 및 오디션은 각 대학 또는 유관 기관의 추천으로 응모한 분 중 한분 - 오자경박사(한국종합예술대학교 교수)를 선발하고 8월중 음악잡지 및 신문에 공고하고 9월초 2차면접 및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기로 했다.

## 7월 새가족 환영의 시간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7월 새가족 환영의 시간을 갖는다. 새가족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동성 강성관 강요체 강용길 권세혁 권혁선 권혁주 김경민 김경태 김도경 김도연 김동용 김민주 김영분 김영선 김영이 김용정 김 윤 김은수 김종민 김중희 김준수 김지연 김지연 김지현 김천호 김철호 김태연 김현호 김혜경 김활라 남소희 문서연 문윤근 민병환 박덕성 박상용 박수례 박윤호 박정현 방유선 방진수 배경우 변승균 손석민 송혜경 신광옥 신규철 신재우 신해운 신현민 신현숙 신호운 안재균 양미정 엄순재 염혜리 오명체 유화자 윤기원 윤여준 은영범 은지수 은형주 이경호 이경희 이덕순 이상운 이상훈 이아영 이인숙 이정호 이종봉 이지수 이채은 이철우 이태경 이택기 이풍우 이현우 이혜원 인상균 임명자 임봉자 임정은 장영태 장원태 장진영 장창의 장혁준 장 현 전인숙 정이경 정인혜 정종애 조기익 조유진 진소영 천인주 최경미 최명균 최미영 최용길 최준용 최진국 최창균 포민경 하극수 허경숙 허석운 허정원 현정애 (이상 112명)

## 8월 행사계획표

- 8월 3일(주) 교육위원회
- 해위단기선교단, 농촌전도봉사단 파송식
- 4일(월) 해위단기선교단 출발
- (캄보디아 8.4 ~ 8.14)
- 5일(화) 농촌전도봉사단 출발(8.5 ~ 8.8)
- 10일(주) 하반기 장학금 수여
- 전도위원회
- 14일(목) 당회원 수련회(8.14 ~ 8.15)
- 17일(주) 교구위원회
- 18일(월) 청년부 수련회(8.18 ~ 8.21)
- 20일(수) 학습, 세례식
- 24일(주) 찬양위원회



# 그 소망은 땅이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

## 김운호(단기선교팀 지도 목사)

쫄쫄rip 수어?(안녕하십니까?)  
단기선교사로 지원한 훈련생들과 함께 4월 4일부터 매주 금요일 교회에 모여 말씀과 기도와 교육으로 훈련을 받으며 준비해 왔습니다.

그 동안 꾸준히 훈련을 받은 23명의 단기선교사가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8월 4일(월) 출발하여 8일 동안 캄보디아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8월 14일(목)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모든 단기선교사들은 "킬링필드(killing field)의 캄보디아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는 영으로 말미암아 리빙필드(living field)의 캄보디아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금번 단기선교팀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시에 있는 프놈펜대학생교회와 한국인선교사가 개척한교회, 그리고 프놈펜시에서 170여km 떨어져있는 끄뵁툼시에 있는 끄뵁툼교회, 그리고 이 끄뵁툼에서 약 30km 떨어진 마을에 있는 폼스라에 교회에서 선교사역을 하게되었습니다.

각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집회, 어린이성경학교, 노방(캠퍼스)전도, 의료사역, 이·미용사역, 방역사역 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영적 전장에 나가 싸우게 될 우리 단기선교팀의 모든 단원들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하는 손을 필요로 합니다. 성도님들의 꾸준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을 열심히 싸워서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아편 찌란 나(대단히 감사합니다)!

## 이용 식 목사(농촌전도대 수원교회지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농촌 전도대 B팀 37명은 수원교회로 부름 받아 출발합니다. 수원교회는 충남 공주시 유구읍 문금리에 위치한 교회로 장년 19명, 중고등부 7명, 유초등부 2명 총 28명이 출석하는 교회입니다. 교인의 대부분은 부인 홀로 출석하는 가정입니다. 주민은 90명 정도 되며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은 편입니다. 지역을 위해 교회의 확장실 보수와 마을 전기시설, 가구 수리등의 지역봉사활동을 펼칩니다. 마을 전도를 위해 저희들은 이미 주민들의 이름을 다 파악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도대의 목표는 전도대 한팀이 2사람을 맡아 집중 전도하여 전주민을 100% 복음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전주민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여호와 닮은 승리의 깃발이 이 동네에 휘날리기를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수원교회교인들

## 한상은 목사(농촌전도대 신덕교회 팀지도)

농촌전도대 신덕교회 팀이 8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동안 파송됩니다. 신덕교회는 충남 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205번지 소재하고 있는 교회로 1989년 설립된 15년된 교회입니다. 현재는 지난 5월 부임한 정문화 전도사를 중심으로 장년 18명, 중고등부 11명, 유초등부 16명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45여명으로 구성된 우리 신덕교회 팀은 교회가 소개한 신덕리와 인근의 덕실리 대관리 목현리 구동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의료 이미용 등 봉사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또한 이 기간 교회에서는 전도집회와 여름성경학교도 열 예정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지역의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접한 모든 이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덕교회 지역에서 주님께 시작하시는 일들이 모두 온전히 이뤄지는데 바르게 쓰임받는 농촌전도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 신덕교회모습

## 수련회를 마치고

### 민희(고등부)

2003년 7월 마지막 주!!

내 학창 시절중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새터호반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제일 먼저 했던 프로그램은 '천로역정'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경쟁의 방, 그리스도인의 삶, 죽음의 방, 회복의 방, 결단의 방을 통과하면서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었습니다.

둘째날, 새벽부터 맑은 공기를 마시며 예배를 드리고 성경퀴즈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탈락자가 늘어났고 저도 중간에서 탈락하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내가 이렇게 모르다니...

은혜스런 둘째날 집회가 시작되고 나는 어제보다 더 많은 친구들의 입이 열린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세족식을 할때, 처음에는 누군가 나의 발을 씻겨 주다는 생각에 쑥스러웠지만...나의 발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을 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의 하이라이트~~~캠파이어때는 포크댄스를 했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찬양에 맞추어 춤을 추고..파트너가 바뀔 때마다 그 설레임~\* 다음 수련회에서도 다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날 밤은 그렇게 지났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각자의 이름이 적힌 종이에 한마디씩 적어 주었습니다. 친해지지 못한 사람들도 아직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도 다 적지는 못했지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다 전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기념 촬영을 하고 버스를 타면서 아쉬움에 우리 모두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부족한 나를 이 곳으로 오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서울교회에 온지 얼마되지 않아서 수련회에 가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고등부 예배에 나가지 않으면서 주님께 내가 잘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찾게 해 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 내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서울교회는 항상 열려 있었는데 내가 걸들려고 했다는 걸 말이지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 만난 후배들... 친구들... 언니 오빠들과의 만남을 정말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습니다.

내가 가서 체험한 주님의 사랑만큼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도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 왕경의 권사(에바다부)

에바다부는 지난 7월 28일 2박3일 일정으로 강원도 원주 치악산에 다녀왔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말씀과 교제의 은혜의 시간이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에바다부의 말씀은 수화를 통해서 전해진다. 그래서 모든 순서는 수화로 진행 되었다. 말씀의 은혜는 강사로 서신 속초교회 이원홍 목사님의 건강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었다. 강사 목사님이 건강한 가정은 믿음, 화합, 서로가 이해하는 마음, 그리고 건강한 몸이라는 요지의 말씀을 온 몸을 통해 설교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모로 사람을 쓰고 계심을 알게 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임규현 목사님은 믿음의 가정을 주제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며 이 선물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 믿음이 자라나면 말씀을 듣고 또한 보고 깨달아야 한다고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해 주셨다.

또한 전인화 권사님의 간증은 하나님이 들어 쓰신 믿음의 역사와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믿음의 선배를 알게 되었다.

성극을 통해 특출한 농인들의 은사를 보고 놀라며 한없이 감사하였다.

비온 뒤 맑은 밤하늘에서 쏟아지는 별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놀라운 솜씨에 감동을 받았으며 우리 수련회를 방문해주신 장로님과 교역자 여러분의 사랑의 발걸음을 통해 서울교회의 한가족이며 지체임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끝으로 우리 수련회를 위해 내내 애써주신 홍성주 장로님과 에바다부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

#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 캄보디아의 성공적인 선교가 여러분의 기도에 달려있습니다.



**전용순**  
캄보디아인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임예정**  
영육간에 건강하도록



**마예심**  
할아버지의 건강을 회복시켜주옵소서



**백길수**  
동생들이 믿음생활 할 수 있도록



**손재영**  
캄보디아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이 편안하게 전해지도록



**노재균**  
건강하게 하옵소서



**김영주**  
치과사와 간호사를 보내주옵소서



**나소정**  
캄보디아에서 주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만나**  
편입학문제가 해결되도록



**이지벽**  
캄보디아 단기선교를 은혜중에 마치도록



**최요섭**  
서로 사랑하고 단기선교의 일을 잘 마칠수 있도록



**손은복**  
단기선교를 통해 믿음이 강해지도록



**문옥일**  
남편의 신앙을 성숙시켜주옵소서



**최아영**  
선교중 맡은 일을 잘 감당하도록



**인요섭**  
단기선교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 성경으로 돌아가자!!!



김정호집사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사랑하고 어떤 가문을 자랑합니까? 여기 성경을 사랑하고 믿음의 가문을 자랑하는 김정호 집사님을 찾았다.

김 집사님은 오랫동안 성경없는 형식적이며 습관적인 신앙 생활을 해오면서도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지 않고 그저 주일이면 그렇게 지난 무지한 지난날들을 회개하며 안타까워 하셨다.

하나님의 인도로 4개월전 다락방에 들어가 다락방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경읽기 숙제를 하면서부터 성경읽기를 시작하여 6독을 마치고 7독에 들어갔다고 한다.

요즘처럼 최첨단 과학 정보화 시대에 살면서 교회와 가정에서 성경이 멀어지고 있는 이때 말씀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신 김정호 집사님의 통독의 열심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던져주고 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대단한 결심을 하신 김정호 집사님

그 동안 알지 못했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체험하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와 감동으로 맹인이 어두움 속에서 환희의 빛을 보듯 인생을 다시 사는 기분이라며 말씀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향기는 우리가 느끼는 신선한 충격이었다. 진정 말씀 속에서 부유한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 무척이나 행복해보였다.

26년 동안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출발이라고 말씀하시며 아직도 멀었다는 겸손하신 집사님! 교회에서도 저하추차장에 주차위원으로 헌신하시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기만 하다.

가정에서도 더욱 화목하려고 애쓰시고 더 자상한 아버지와 남편이 되었다고 부인 신경희 집사님께서 오랫동안 기도의 응답이라며 하나님 앞에 감사 할 뿐이라고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요즘처럼 찌는 더위에도 일터에서 시간만 있으면 성경 속에서 마냥 빠져있는 김정호 집사님의 열심은 앞으로 기도와 찬양으로 뜨겁게 결집되어 더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숙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도 성경으로 돌아가 진정 부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 여름철 건강관리 박병원 성도(3교구)

고온다습한 기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신이 무거워지고 머리는 몽롱하고 전신이 무력해져 일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능률이 오르지 않는 것은 물론, 마음 또한 불안정하게 됨으로써 신경질 발생의 빈도가 높아진다.

인체는 기온이 상승하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땀을 내보내고 증발시켜서 높아진 체온을 떨어지게 한다. 땀을 나게 하려면 피부표면의 혈관을 확장시키고 그쪽으로 혈액도 많이 보낸다. 이때 반대로 뇌, 사지, 내부장기 등에는 혈액 공급이 적어져 기억력과 정신활동 능력의 저하가 초래되고 위장에는 혈액순환이 저하되어 냉해지고 연동운동도 저하되어 소화력과 입맛이 떨어지고 찬 음식에 의한 탈도 잘 생긴다. 물론 팔다리 근육에 공급되는 혈액이 부족하여 사지가 무겁고 노곤하게 된다. 또 순환이 저하되면서 근육에 피로물질인 젖산이 쌓이고 장기간의 발한 과다와 고 체온 시에 소변량이 감소되면서 신장기능의 감퇴, 결석생성이 될 수도 있으므로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여름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일사병과 열사병 등으로 '더위 먹었다'고 하는 증상들이다. 땀을 지나치게 흘려 수분, 염분 전해질이 부족해지면 더욱 심한 발한, 피로, 현기증, 구역질, 울렁거림, 식욕감퇴, 두통, 근육경련, 손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0-50분에 10분 정도의 휴식과 갈증이 없어도 수분 또는 스포츠 음료를 소량씩 자주 마신다. 모자나 양산으로 자외선과 직사광선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위장질환으로는 설사 복통 과관 증상이 일어나기 쉬운데 냉한 음식을 많이 먹어 속이 나쁠 때에는 생강차, 매실차를 진하게 마시고 배를 핫팩 등으로 따뜻하게 한다. 식중독은 6-8월중 70%가 발생하는데 원인은 오염되거나 상한 음식물로, 조리하기 전에 칼과 도마 행주 등을 끓여서 소독하고 끓여서 익힌 음식을 섭취하도록 한다. 냉방병은 장시간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사용하여 체온의 감소되고 신진대사가 잘 되지 않아 몸이 쪼뼛뼛하고 붓거나 두통 신경통 감기기운 등으로 나타난다. 자주 몸을 움직여 운동을 가볍게 하고 허약한 사람은 긴 팔 옷을 입어 보온하고 따뜻한 음료 더운 목욕이 좋다.

끝으로 지루할 수도 있는 여름이지만 풍성한 가을 수확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계절이다. 자연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혜롭게 순응하면 건강한 여름이 될 것이다.

### 기관별 식당 봉사자

- 8.3(주) - 도르가여전도회
- 8.10(주) - 루디아여전도회
- 8.17(주) - 뽀뽀여전도회
- 8.24(주) - 마리아여전도회
- 8.31(주) - 에스더여전도회

### 동정

- 이종운 목사: 4일(월) 총회 대학위원회 주관 논문 시상식에서 강평을 한다. 7일(목) 미래한국신문 신앙·신학 전문위원회와 서울여대 이사회에 참여한다.
- 이사: 박세일·이소현 집사(1교구) 영동포구 문래동 54번지 LG빌리지 103-604 전화: 2633-4338
- 금주의 식사: 정무균 집사 이영희 권사 가정 (은혜 중에 퇴원을 감사하며)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기독교방송(HLKY 106.9M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 서울 주간기도

###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여름철에 영육이 건강하도록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3. 캄보디아 단기선교팀·농촌 전도대를 위하여
4.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하여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약도 :

